

도내 학생들의 끼·재능 ‘맘껏’

‘2024 전북학교 예술교육 대축제’, 내일부터 사흘간 오케스트라·뮤지컬·미술 등 총 3650여명 참여

‘2024년 전북학교 예술교육 대축제’가 오는 22~24일 3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장 및 아이부스에서 펼쳐진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다양한 영역의 예술 체험 활동과 협력적 창조 활동으로 학생들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술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해마다 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 예술교육지원 지정학교 중 희망학교와 학생 예술동아리 운영 학교 중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총 3,65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오케스트라, 사물놀이, 락밴드, 합창, 뮤지컬, 풍요, 국악, 댄스 등 음악분야와 창의미술, 미술동

아리, 미술체험 등 미술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미술부에서는 웹툰, 디자인, 공예 등의 미술작품 전시와 한지공예, 가죽공예, 페이스페인팅 등 미술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아이부대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실내공연 및 미술부스는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공연관람 및 미술체험이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학교 예술교육 대축제는 학생들이 가진 끼와 재능을 맘껏 펼치는 자리”라면서 “학생 1 예술 활동 등 학생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4년 전북학교 예술교육 대축제’가 오는 22~24일 3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장 및 아이부스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학교 예술교육지원 지정학교 중 희망학교와 학생 예술동아리 운영학교 중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총 3,65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과 28일 두차례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일반직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효과 예측 및 교육행정의 과학화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 강화, 실무 데이터 활용 능력 향상에 목적을 뒀다.

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 △공공 데이터 활용 방법 △Power BI와 파워 쿼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실습 등이다.

Power BI는 데이터를 원하는 방법으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데이터 활용 도구다. 또 파워 쿼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환하는 도구로, 복잡한 작업을 시각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도구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체육대회 현장을 찾아 만학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여러분들의 만학의 꿈 응원합니다”

서거석 교육감, 학력인정 도립여성중고 방문 격려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체육대회 현장을 찾아 만학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로, 138명의 재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취임 이후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 2배 인상

△학생 교육활동비 및 교과서비 지원 △교육 환경개선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서 교육감은 “배움에 대한 의욕과 열망은 가득했으나 교육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정덕호)은 2025학년도 초·중등 심화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등심화과정은 수학과 과학, 융합 분야에 각 17명을, 중등심화과정은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지구, 정보(SW) 분야에 15명씩이다. 일반전형 외에도 사회통합대상자전형을 통해 각 분야 3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각 전형 내에서 전국 27개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이나,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전북과학꿈나무기초교육 오프라인 선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 우선 선발된다.

원서는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과학영재교육원 선발사이트(<http://select.gifted.ac.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초등심화과정의 지원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재학생이며, 중등심화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이들은 해당 학교 담당 교사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전형 후 11월 16일 창의적문제해결능력검사인 1차 전형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11월 30일 2차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http://select.gifted.ac.kr>)나 과학영재교육원(063-270-360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경제인들의 성공스토리, 한인비즈니스 듣는다

공보미 미국 킬로발 대표 등 전북대서 세계 경제인들 특강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오는 22~24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내한한 세계 경제인들이 특강을 열었다.

지난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시영 J&K Lee Property 회장(미주 호남향우회장)이 전북대 경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입과 수출’을 주제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농산물을 현지에 수출하게 된 생생한 경험을 전했다.

또 14일에는 미국 LA에서 내한한 공보미 미국 킬로발(Kylobal) 대표가 전북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내가 되고 싶은 부모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공 대표는 자녀를 UC버클리, UC 샌디에고 및 하버드 MBA와 같은 유수대학에 보낸 성공 노하우를 전해 공감을 얻었다.

15일에는 Otion Consulting, Otion properties, Alcity 등 3개 기업을 경영하는 탁영주 대표가 맨땅에서 기업을 경영하기까지의 미국에서의 경험을 ‘아메리칸 서세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21일 김형을 Cleaner USA 대표가 전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 큰 비전을 갖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치고, 22일 박영이 오토



오는 22~24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내한한 세계 경제인들이 특강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14일 미국 LA에서 내한한 공보미 미국 킬로발(Kylobal) 대표가 전북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내가 되고 싶은 부모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친 뒤 참석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박 대표(타나니아), 이기철 3S Consulting, Inc 대표(미국), 조규자 미주 한인회 서남부연합회장(미국), 23일 오세영 코라오그룹 대표(라오스), 은지연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미국) 등의 특강이 준비됐다. 김일진 C&D LEGACY CEO, 윤만 FEELS USA 대표 등도 전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일정을 조율 중이다.

양오봉 총장은 “대학에서 열리는 첫 대회인 만큼 세계 경제인들의 다양한 특강을 통해 세계 무대 진출의 동기를 부여하고, 꿈을 키울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인들과의 직·간접적인 소통을 통해 학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방향과 지혜 등을 배워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올 한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교직원 찾습니다

‘제6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공모
내달 29일까지 신청접수... 8명 선정

이 시대 참 교육자를 뽑는 ‘제6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공모가 시작했다.

지난 18일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에 따르면 11월 29일까지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는 공적이 화려하지 않아도 학생을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직원을 발굴, 응원하는 것이 이 상의 취지다. 또 귀감이 될 만한 교사·교직원을 발굴해 스승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다.

추천 대상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교직원, 5년 이상 경력으로 학부모·학생 등 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이다. 분야는 초·중등, 고등, 교육전문직 및 행정직, 교육공무직, 대안학교 교직원 등에서 8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내 유일하게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상으로, 상금도 도내 기업·시민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두재규 위원장은 “묵묵히 귀감이 된 교사·교직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의식을 돈독하게 해주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며 “지난해 수상자들의 활동과 사연이 지역사회에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신청은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명부, 공적조서, 공적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수상후보자동의서, 증명사진 등을 이메일(arumdari@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도내 최고 독서토론팀 ‘옥석 가리기’

전주MBC-전북자치도교육청, 독서토론팀 ‘북적북적 시즌2’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방송

전북 최고의 초중고 독서토론팀을 뽑는 무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독서토론팀마당 ‘북적북적 시즌2’ 프로그램이 매주 일요일 6차례 방송된다.

전주MBC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 하는 독서토론팀마당은 독서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

이 대회는 지난 3개월간의 치열한 승부를 통해 결승에 이르렀다. 각 팀은 학생 3인과 지도교사 1인으로 구성, 총 100여 팀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심사위원으로는 신중호 교수(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지영 교수(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송승훈 교사(의정부광동고등학교), 강용철 교사(서울경희여자중학교), 김새섬 대표(온라인 독서모임 플랫폼 ‘그림’)가 참여했다. 또 사회와 진행은 박혜진 전 MBC 아나운서가 맡았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열띤 독서토론팀대회와 대회 준비 과정 등을 담은 독서토론팀마당 ‘북적북적 시즌2’가 27일 오전 8시 35분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동시간대에 총 6차례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다.

방송은 27일 제1회 초등부 준결승전 및 중등부 준결승전 I을 시작으로 11월 3일 제2회 초등부 준결승전 II 및 중등부 준결승전 II, 11월 10일 제3회 초등부 준결승전 I·II, 11월 17일 제4회 초등부 결승전, 11월 24일 제5회 중등부 결승전, 12월 1일 제6회 고등부 결승전 순으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말레이시아 학생 등 방문단, 김제 찾아

21~23일 김제 김산초·24~25일 원평초서 국제교류수업

말레이시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40여 명의 방문단이 김제를 찾는다.

18일 김제김산초등학교(교장 홍애경)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일람지역의 학교 SK SEKSYEN 13과 케다 콜림 지역의 학교 SK AIR MERAH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 43명이 국제교류수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5일 5박 6일의 일정으로 김제를 방문한다.

말레이시아 방문단은 21~23일에는 김제김산초에서, 24~25일에는 원평초에서 국제교류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제김산초는 중창단, 오케스트라, 2학년 학생 노래 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행사를 열어 방문단을 성대히 맞이하고,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팀을 이뤄 팀별로 학교 곳곳을 안내하는 소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학교 축제인 ‘미중불 축제’와 어울려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운영한다.

이에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김제김산

초 학생들과 △합동 pop-song 공연 △말레이시아 전통 노래 및 춤 공연 △말레이시아 전통 문화 소개 부스 운영 △미래교육연구원에서의 AI SW교육체험 △한유미를 해설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교류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제 김산초 김광서 교사는 “국제교류수업 프로그램 일환인 온라인 수업, 해외현장체험학습, 해외학교 초청 교류수업 등을 통해 다양한 해외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폭넓은 국제교류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애경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온라인 교류수업, 해외 방문 교류수업에 활발히 참여해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접할 수 있었다”면서 “해외학교 초청 교류수업을 직접 계획하고 활동함으로써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미래 역량을 지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